레드벨벳 'Bad Boy' 빌보드 선정 '올해의 K-POP' 1위

레드벨벳(Red Velvet)의 히트곡 'Bad Boy' (배드 보이)가 미국 빌보드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비평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 K-POP 송 20' 에서 1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Bad Boy' 에 대해 "무성한 사운드와 비비드한 뮤직비디오를 기반으로 레드벨벳의 팜므파탈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Bad Boy' 는 R&B의 매끄러움을 보여줌과 동시에 올해 가장 완벽한 레드벨벳의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라고 호평했다.

2위는 펜타곤 '빛나리' , 3위는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 , 4위에는 아이유의 '삐삐' , 5위에는 '샤이니' 의 '네가 남겨둔 말' 이 선정됐다.

한편 빌보드는 올해 최고의 앨범으로는 방탄소년단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LOVE YOURSELF 結 ANSWER)가 선정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은 지난 2년간 세계 음악시장의 정상에서 새 역사를 만들었다. 그 와중에 '자신을 사랑하라' 는 주제의식을 엮어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를 만들어냈다" 면서 이들이 5월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와 9월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로 '빌보드 200' 1위를 잇달아 차지한 사실을 소개했다.

2위는 故종현의 유작 앨범 '포에트 | 아티스트' (Poet | Artist), 3위는 선미 미니앨범 '워닝' (Warning), 4위에는 헤이즈 '위시 & 윈드' (Wish & Wind), 5위 엑소 정규 5집 '돈트 메스 업 마이 템포' (Don't mess up my tempo), 6위 방탄소년단 리더 RM의 믹스테이프 '모노.' (mono.)가 선정됐다.

유튜브 " '뚜두뚜두' 올해 최고 인기 K-POP 뮤직비디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가 올해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를 끈 K팝 뮤직비디오로 조사됐다.

유튜브는 19일 '2018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K팝 공식 뮤직비디오 TOP 10' 을 발표하며 " '뚜두뚜두' 의 전체 조회 수 중 94%가 해외에서 발생했다. 작년 '마지막처럼' 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려 블랙핑크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입증했다." 고 설명했다.

2위부터 4위까지는 '페이크 러브' (FAKE LOVE), '마이크 드롭' (MIC Drop) 리믹스' , '아이돌' (IDOL) 순으로 모두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가 차지했다.

트와이스의 '하트 셰이커' (Heart Shaker, 6위), '왓이즈 러브?' (What is love?, 7위)가 각각 6위와 7위, '댄스 더 나잇 어웨이' (Dance the night away, 10위)등 세 개 곡의 뮤직비디오도 10위 안에 들었다.

5위는 모모랜드의 '뿜뿜' , 8위는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 9위는 레드벨벳의 '배드 보이' (Bad boy)였다.

오프라 윈프리, "오스카 진행 절대 안해!"

오프라 윈프리가 백인 중심 이벤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아카데미상 시상식 진행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윈프리는 15일 연예매체 TMZ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윈프리는 '오스카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나' 라는 질문에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며 "절대 안 한다!" (no way)고 대답했다. 이 매체는 윈프리의 답은 '분명한 거절' 이었다고 전했다.

내년 2월 24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리는 제91회 아카데미상(오스카) 시상식을 앞두고 오스카를 주관하는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진행자(host) 구인난' 을 겪고 있다.

애초 진행자로 낙점한 흑인 코미디언 케빈 하트(39)가 과거 성소수자(LGBTQ) 차별 발언으로 논란 끝에 하차한 이후 진행자 물망에 오른 인물들이 오스카상 진행자로 무대에 서는 것을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카데미 측은 백인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흑인 진행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속속 거절하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연예매체 ET에 따르면 최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미스유니버스대회를 진행한 베테랑 흑인 코미디언 스티브 하비(61)도 "난 오스카를 절대 진행할 수 없다." 고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